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창업지원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책임연구자	박남규
공동연구원	김자영 · 고현준
연구기간	2022.4.1 – 2022.5.31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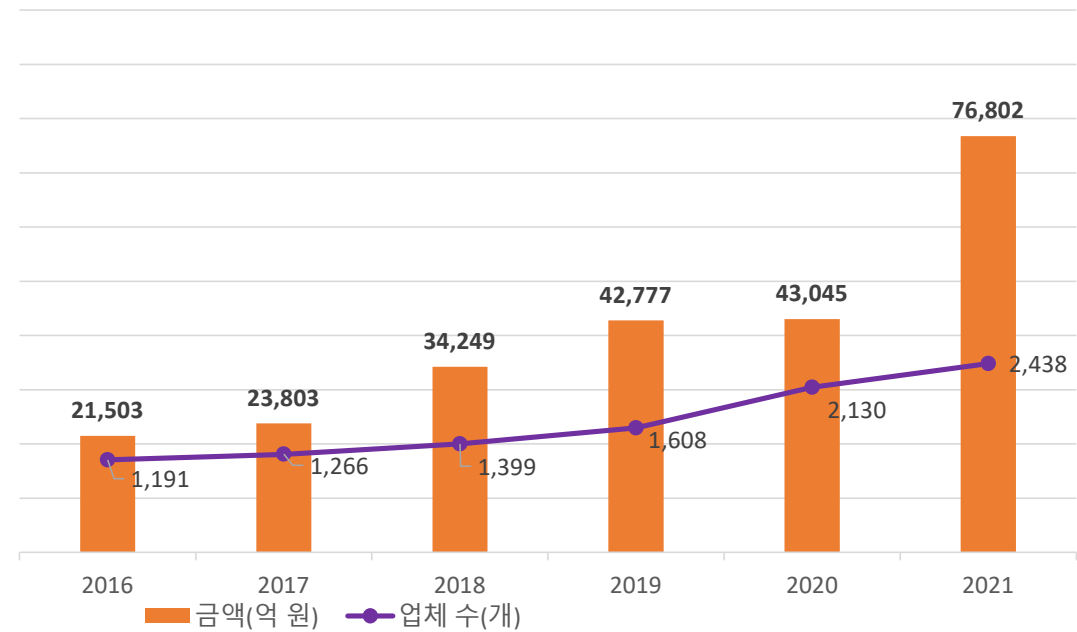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건강하고 내실 있는 창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한국 경제에서 고용 창출은 물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

정부지원정책 확대 및 다양한 벤처투자 기관들의 등장으로 벤처에 투자 가능한 총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인력채용, 기업홍보, 경영지원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국내 벤처창업관련 연 투자금액은 2015년부터 2조원을 돌파한 이후 연 평균 14%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2019년 실적 기준 0.22%를 차지, 미국(0.40%), 이스라엘(0.38%), 중국(0.27%)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1월)
- 2021년 투자실적 기준 0.58%까지 증가하였음.

국내 벤처창업 연도별 투자금액 및 업체 수



*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2년 3월

연구의 개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 고도화는 물론, 청년세대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투자-네트워크-인프라의 3요소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종합적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임.

2012년 은행권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당시 전국은행연합회
사원기관 20개 금융기관이 총 5,000억원 출연을 결의하여 설립

2021년말 현재 은행권 총 8,450억 출자

2013년 3월 국내 최초로 스타트업 허브인 디캠프(D.CAMP)를
출범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 입주기업 선발 및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내 최대 창업지원센터로 성장



재단은 출범 이후 지난 10년간 다양한 창업지원 활동을 실행했으며,
현재까지의 **성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객관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창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새로운
미래전략 도입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투자성과에서 나타나는 직접적 경제효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연관산업들에 대한 생산/ 부가가치/ 고용 및
취업 창출 효과 등 전반적인 **경제력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점검**

현재 재단이 운영 중인 개별 프로그램들의 **사회적 공헌 및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필요**

**재단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객관화 된 평가지표 및
향후 개선점 도출 필요**

본 연구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모든 지원사업과 직접 및 간접투자 사업의 성과를 경제적 파급효과 관점에서 정량화된 지표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1) 직접 및 간접 투자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 및 고용창출 효과 분석

직간접 투자에 대한 개별 경제적 평가 및
생산/부가가치/고용/취업유발 효과 분석 및 추정

2)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들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금융 지원 및 투자 지원을 실시한 것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및
추정

3) 다양한 지원 및 육성 프로그램 별 경제적 가치 창출 효과 분석

디데이, IF 페스티벌, 성장지원프로그램, 커뮤니티 입주 프로그램,
글로벌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및 추정

4) 스타트업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공간 인프라의 경제적 효과 분석

면적당 경제성 및 입주한 패밀리사들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및 추정

5) 출연 금융기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경제적 효익 분석

출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세 감면효과 및 사회적공헌활동에 대한
인식변화 설문조사 결과 분석

은행권창업재단 운영사업 관련 경제적 가치 및 파급효과 (재단설립-2021 누적 10년간)



보육

스타트업 보육 경제적 가치	
공간제공, 프로그램	338억원

공간제공①	239 억원
입주기업	435개사
성장지원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99 억원
오피스아워 참가자수	2,312명
교육 참가자수	1,668명
세미나 참가자수	8,807명
입주커뮤니티 참가자수	7,328명

연결·홍보

스타트업 연결·홍보 경제적 가치	
디데이, IF페스티벌, 글로벌 교류협력	517억원

디데이	317 억원
개최횟수	92회
지원기업수	6,000개사
참가 청중수	16,169명
IF페스티벌	163 억원
개최횟수	5회
참가기업수	447개사
참가 청중수 ⑤	198,319명
글로벌 교류협력	37 억원
네트워크 보유국	45개국
협력 기관수	314개
방문건수	141건
방문인원	911명 이상

투자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연관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직접 투자	후속 투자	간접투자 (재단)	간접투자 (타조합원)
투입액	119억원	4,862억원	5,560억원	99,512억원
생산유발효과	211억원	8,470억원	9,719억원	172,81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00억원	4,203억원	4,590억원	80,856억원
고용유발효과②	116명	4,992명	5,551명	98,309명
취업유발효과③	158명	6,761명	7,141명	128,215명

직접투자④	
투자기업수	144개사
직접투자금액	186억원
후속투자금액	4,862억원
간접투자⑤	
펀드개수	26개
출자약정금액	7,513억원
누적출자금액	5,560억원
펀드조성금액	12조8,997억원
보증(대위변제)④	
보증기업수	2,195개사
보증금액	850억원
대위변제금액	213억원
추정이자수익	172억원



① 디캠프(2013년 3월 개관)와 프론트윈(2020년 7월 개관)의 가치를 합산하여 추정
 ② 고용유발효과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최종 수요가 늘어나 관련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임금 근로자 수이며, ③ 취업유발효과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
 ④ 2021년 12월 말 기준
 ⑤ 온라인 청중 수 미포함
 ⑥ 유발투자=직접투자의 후속투자+간접투자의 타출자투자 추정액

객관적 지표를 기반으로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다양한 사업들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 및 파급효과를 산출하고자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였으며, 실질적인 평가 및 가치 도출 작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함.

- 1)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최소값을 먼저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대값을 추정하였음. 최소값과 최대값의 **중간값을 추정치의 기본값**으로 설정하였음.
- 2) **최소값을 보수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특정 사업에 필요한 실제 투입예산을 근거치로 활용하거나, 해당 사업에 대한 시장 가격 중에서 하위 30%정도에 해당하는 값을 추정치로 활용하였음. **공정한 시장 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3개 이상 복수의 값을 평가에 반영**하였음.
- 3) 최대값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값에 대해서 부여할 수 있는 가장 **보수적인 승수효과를 산정하여 추정**하였음. 승수효과는 해당 사업에 참여했던 당사자, 관계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성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간접적 가치를 반영**하였음.
- 4)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활동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투자가 실행되었거나, 혹은 간접투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납입된 금액을 투자기준치로 활용**하였음.
- 5) **투자활동을 제외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산업간 연관 및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보수적인 가치 산정을 **위해서 해당 사업에서 창출되는 직접효과만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 6) **직접 및 간접 투자에 따른 산업간 연관 및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투자가 발생한 **당해 년도에 대해서만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음.

디데이(D·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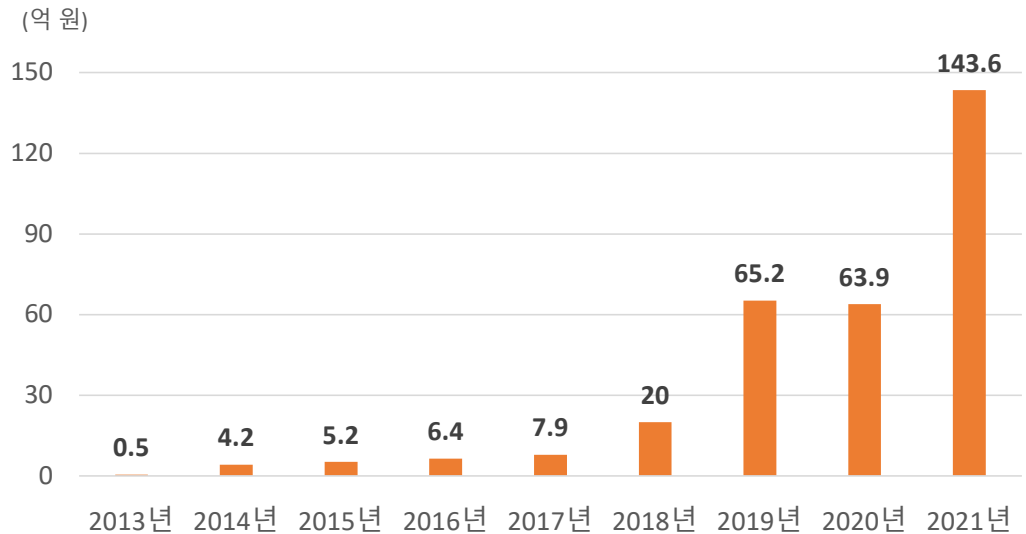


월간 스타트업 데모데이

- 2013년 6월 처음으로 시작하여 스타트업 생태계와 함께 성장해온 최장수 데모데이
- 총 6,000개 이상의 기업이 지원하여 489개 기업이 출전하였으며, VC 산업 대표 플레이어들이 대거 참여하는 딜 소싱을 위한 공동 플랫폼임.
- 디데이 우승이 타 기관·기업의 창업 관련 프로그램 및 투자와 관련된 심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례가 다수 있으나 정량화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디데이로 인한 홍보효과 위주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

디데이의 경제적 가치 (2013-2021)

1회당 경제적 가치	3.4억원
연간 경제적 가치평균(11회)	37.9억원
2013-2021년 디데이 개최의 경제적 가치	316.8억원



스타트업 데모데이
디데이(D·DAY)



개최 현황(2013.6 - 2021)

재단설립 이후 경제적 가치
 (2013년-2021년 누적)

316.8억원

디데이 총 개최 횟수 92회	디데이 총 출전 기업 수 489 개사
디데이 총 신청 기업 수 6,000개사	디데이 참가 총 청중 수 16,169명

디데이 경제적 가치 추정 관련 항목

참가 신청 기업에 대한 홍보 효과	참가한 청중에 대한 홍보 효과
디캠프 예산	외부협력 예산
디데이 및 디캠프 기사 관련 홍보 효과 ^①	유튜브, 블로그, SNS 관련 홍보 효과
출전기업에 의한 홍보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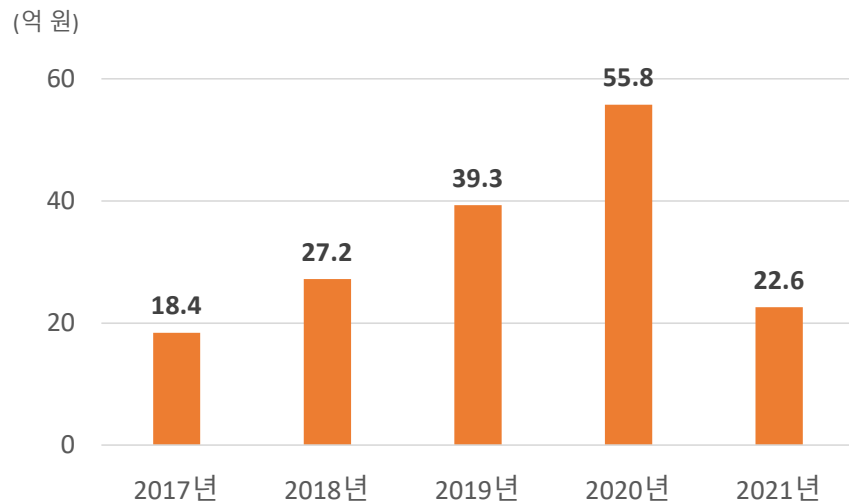
① IF 페스티벌 관련 기사를 제외한 전체 기사의 홍보효과 반영



IF(Imagine Future) 페스티벌

IF 페스티벌의 경제적 가치

1회당 경제적 가치	32.7억원
2017-2021년 IF페스티벌 개최의 경제적 가치	163.4억원



스타트업 거리 축제

- 국내 초기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대중과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축제 (2017년~2021년, 5회)
- 코로나로 행사가 축소된 2020년, 2021년 행사를 제외하고, IF페스티벌 개최 시 평균적으로 약 63,282명의 소비자와 투자자가 참가함.
- 스타트업들은 페스티벌 참여를 통해서 네이버 키워드 광고, 대형 옥외광고판을 통하여 홍보하는 기회를 가짐

IF(Imagine Future) 페스티벌

개최 현황(2017-2021)

재단설립 이후 경제적 가치
(2017-2021년 누적)

163.4억원

IF페스티벌 개최 횟수
5회

IF페스티벌 참가 청중 수*
198,319명

*온라인 청중 미포함

IF페스티벌 참가 기업 수
447개사

IF페스티벌 온라인 노출횟수
24,309,377회

IF페스티벌 경제적 가치 추정 관련 항목

참가 기업에 대한 홍보 효과	참가한 청중에 대한 홍보 효과
디캠프 예산	외부협력 예산
온라인 노출에 의한 홍보효과	블랙프라이데이에 의한 홍보효과
온라인 채널 광고비용	기사 관련 홍보 효과
유튜브, 블로그, SNS 관련 홍보 효과	오프라인 홍보효과 (옥외광고)
출연기관에 대한 홍보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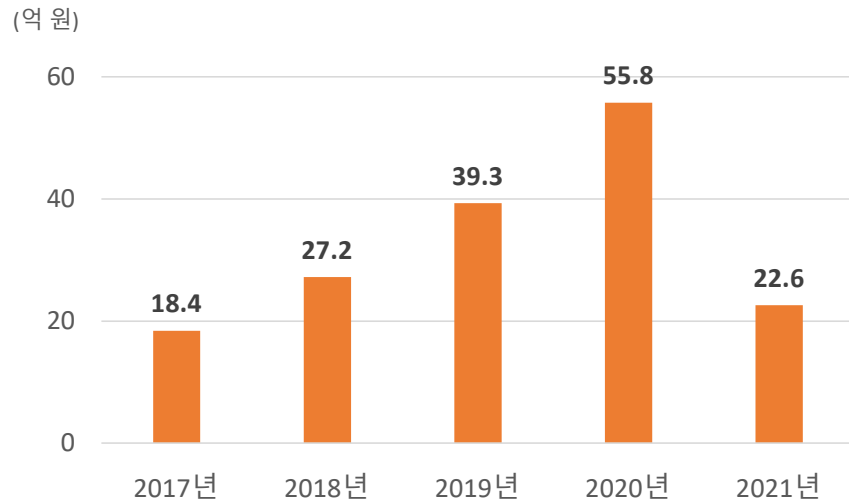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돕는
글로벌 교류·협력



글로벌 교류·협력의 경제적 가치

2014-2021년 글로벌 교류·협력의 경제적 가치 **37.4 억원**



* 글로벌 네트워크의 참여활동을 기준으로 추정된 수치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

- 해외 파트너사가 국내 스타트업계를 만나는 접점이자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다양한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인사들에 대한 직급과 지역과 같은 의사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들을 기반으로 경제적 가치를 추정



19.11.11 세계은행 IFC



20.09.18 홍콩투자청, 홍콩경제무역부

재단설립 이후 경제적 가치
(2014-2021년 누적)

37.4억원

해외 기관의 디캠프 방문 건수

141건

네트워크 보유 국가

45개국

해외 기관의 디캠프 방문 인원

911명 이상

글로벌 협력 기관 수

31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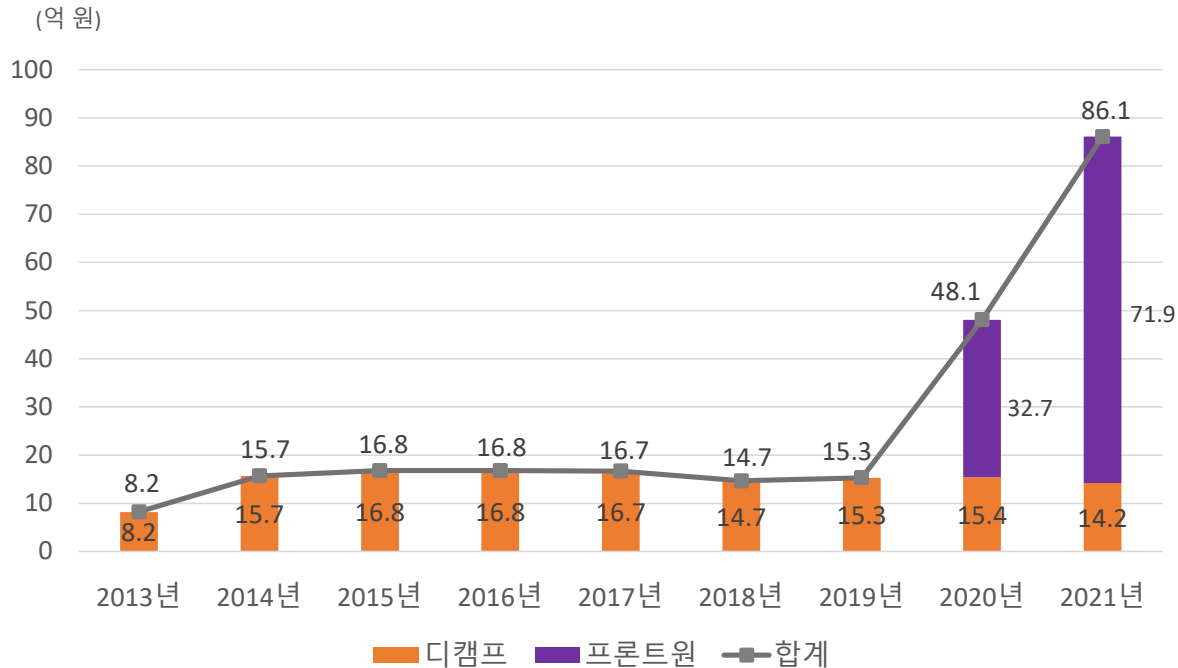
공간제공 - 디캠프 · 프론트원



공간제공 경제적 가치	
디캠프(2013-2021)	133.9 억원
프론트원(2020-2021)	104.6 억원
합계	238.5 억원

재단설립 이후 경제적 가치
(2013-2021년 누적)

238.5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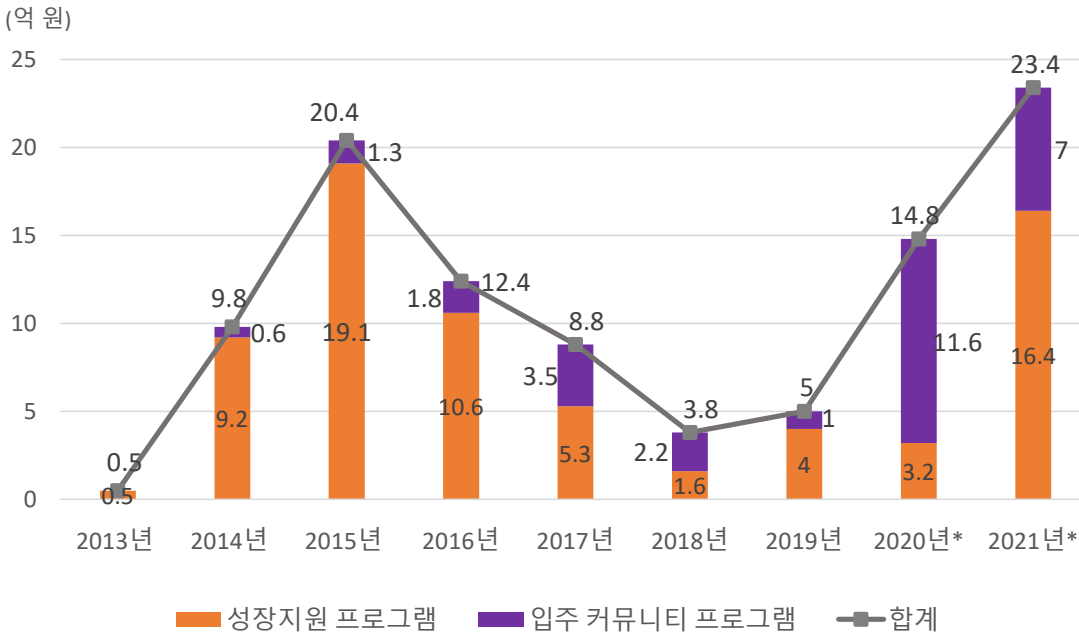
- 국내 최초 복합 창업허브로 성장한 디캠프는 2013년 3월 개관-2021년 12월 224개사가 입주함.
-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보육 공간인 프론트원은 2020년 7월 개관이후 2021년까지 211개사가 입주.
- 인근지역의 비교가능한 공간사용료와 실제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최소가치를 도출하고 디캠프·프론트원에서 제공되는 지원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고려하여 승수효과를 적용함.**

성장지원 및 입주커뮤니티 프로그램



성장지원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경제적 가치	
성장지원 (오피스아워, 교육, 세미나, 전문자문, 채용지원)	69.9 억원
입주커뮤니티 (입주커뮤니티 프로그램, 프론트원 홍보효과)	29.2 억원
합계	99.1 억원

- 디캠프 및 프론트원 입주와 함께 투자유치, 홍보, 사업운영 컨설팅, 채용지원, 법무 상담 및 서비스, 해외진출 전략 등 스타트업들이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특히 2020년 이후부터는 프론트원 개원과 함께 공간입주 및 각종 지원프로그램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였음



* 프론트원 홍보효과 포함

재단설립 이후 경제적 가치
(2013-2021년 누적)

99.1억 원

오피스아워 총 참가자 수

2,312명

교육프로그램 총 참가자 수

1,668명

입주커뮤니티 프로그램 참가자 수

7,328명

세미나 총 참가자 수

8,807명

창업가를 위한 모험인내자본

직접 투자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동반자이자 장기적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



투자 현황(2012-2021) ①

(단위: 개, 억원)

구분 ^②	2012-2014	2015-2017	2018-2020	2021	합계
투자기업 수	58	40	28	18	144
투자금액	62.6	32.1	51.3	39.8	185.9
회수총액	34.2	4.8	1.5	-	40.4
부실금액	19.3	6.5	2.8	-	28.7
투자잔액	27.5	23.3	47.5	39.8	138.1
후속투자금액	321.0	3,420.4	1,382.0	111.6	5,235.0
피투자기업 기업가치 ^③	1,774.6	16,578.5	6,371.3	1,972.5	26,697.0

① 2015년 이전에는 위탁투자 또는 매칭투자 방식으로 운영, 2015이후부터 디캠프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2015년 이후의 투자는 주로 디캠프 직접투자 방식임.

② 2021년 12월말 기준 기업가치임. 부실기업의 기업가치는 0으로 반영, 매각건의 기업가치는 매각시점으로 적용함.

③ 후속투자금액은 최초투자시기 기준임.

재단 자체 직접투자 경제적 가치(2015년-2021년)

가치 창출^①

구분	추정
투자금액	119.2 억원
후속투자금액	4,862.1 억원
기업가치 변화	21,131.7 억원
매출액 변화	2,244.0 억원
고용인원 변화	2,058 명
생존율	90%(81 개사 중 73개사 생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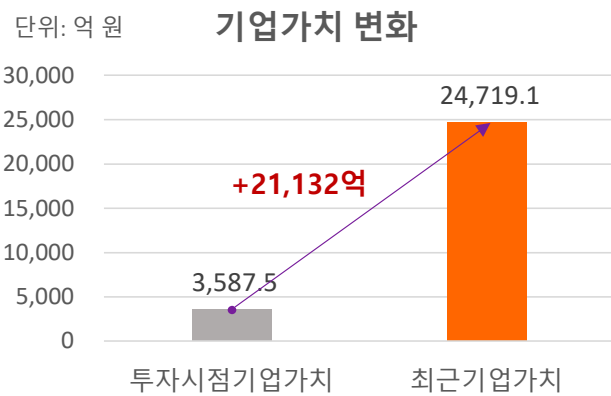
연관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구분	직접투자	후속투자
투입액(억원)	119.2 억원	4,902.6 억원
생산유발효과(억원)	210.7 억원	8,470.4 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억원)	99.6 억원	4,202.9 억원
고용유발효과(명)	116 명	4,992 명
취업유발효과(명)	158 명	6,761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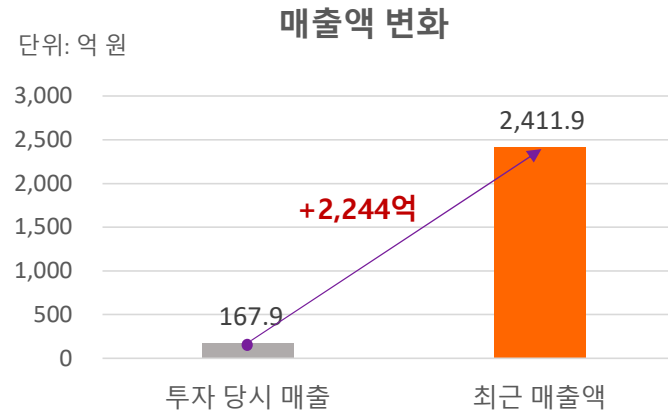
① 기업가치 변화, 매출액, 고용인원 변화는 투자 시점과 2021년 12월말의 예상수치간 단순 비교

직접 투자 – 자체 투자한 기업들의 가치 창출(2015-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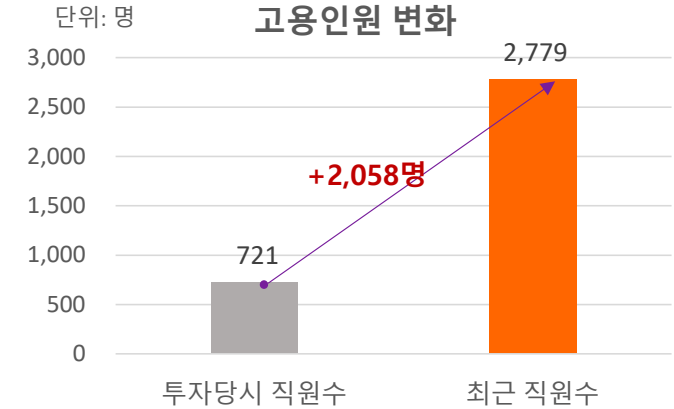
- 재단이 자체 투자한 총 81개의 기업(생존기업 73개사, 폐업기업 8개사)의 투자 시점 대비 2021년 기준 기업가치, 매출액, 고용인원 변화를 추정
- 부실기업의 기업가치는 0으로 반영, 매각건의 기업가치는 매각시점으로 적용
- 투자 시점과 2021년 예상수치간 단순 비교라는 한계가 있음



기업가치 변화 (단위: 억 원)	
투자시점기업가치(A)	3,587.5
최근기업가치(B)	24,719.3
변화량(B-A)	21,131.7



매출액 변화 (단위: 억 원)	
투자 당시 매출(C)	167.9
최근 매출액(D)	2,411.9
변화량(D-C)	2,244.0



고용인원 변화 (단위: 명)	
투자당시 직원 수(E)	721
최근 직원 수(F)	2,779
변화량(F-E)	2,058

재단 자체 직접 투자 – 연관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2015-2021)



연도별 경제적 파급효과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직접투자								
투입액(억원)	4.0	11.2	12.8	9.0	16.2	26.1	39.8	119.2
생산유발효과(억원)	6.8	18.9	21.1	15.5	29.3	49.4	69.7	210.7
부가가치유발효과(억원)	3.4	10.0	11.2	8.0	13.5	20.6	32.9	99.6
고용유발효과(명)	5	12	12	9	16	24	38	116
취업유발효과(명)	7	16	16	12	23	33	51	158
후속투자								
투입액(억원)	949.6	1,970.3	490.0	724.9	249.6	366.1	111.6	4,862.1
생산유발효과(억원)	1,609.8	3,168.0	841.7	1,436.4	468.0	732.9	213.7	8,470.4
부가가치유발효과(억원)	823.1	1,788.1	418.5	619.2	208.3	254.2	91.4	4,202.9
고용유발효과(명)	1,169	1,949	445	784	284	254	106	4,992
취업유발효과(명)	1,689	2,345	577	1,235	420	339	156	6,761

투자 단위 당 경제적 파급효과	
연관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재단투자금액기준
10억원 투자 당 생산유발효과(억원)	17.7 억원
10억원 투자 당 부가가치유발효과(억원)	8.4 억원
10억원 투자 당 고용유발효과(명)	10 명
10억원 투자 당 취업유발효과(명)	10 명

- 산업연관분석은 생산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임
- 산업 제품에 대한 1단위 외부 수요의 변화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의 관점에서 측정 가능함
- 산업연관분석은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는 일정기간동안 국민경제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를 말함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0년, 2015년)의 유발계수에 근거하여 간접투자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적 파급 효과를 추정함

직접투자 경제적 파급효과 (2012-2021년 누적)	
직접투자	후속투자
310.3억원	12,673.3억원

*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

스타트업 지속 성장을 위한

간접투자 - 연관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2013-2021)



투자 단위 당 경제적 파급효과	
구분	재단출자금액기준
10억원 투자 당 생산유발효과(억원)	17.5 억원
10억원 투자 당 부가가치유발효과(억원)	8.3 억원
10억원 투자 당 고용유발효과(명)	10명
10억원 투자 당 취업유발효과(명)	10명

간접투자 경제적 파급효과 (2013-2021년 누적)*	
간접투자 - 재단	간접투자 - 타조합원
14,309.1억원	253,671억원

*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

연도별 경제적 파급효과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재단 출자금액										
투입액(억원)	226.0	267.5	746.0	676.6	793.4	618.6	392.4	807.7	1,032.0	5,560.1
생산유발효과(억원)	399.5	416.7	1,160.9	1,218.0	1,440.7	1,119.8	699.0	1,432.3	1,832.6	9,719.4
부가가치유발효과(억원)	184.5	205.6	570.7	572.0	665.3	519.9	331.9	685.5	854.4	4,589.7
고용유발효과(명)	282	281	780	660	772	602	381	787	1,005	5,551
취업유발효과(명)	473	367	1,024	852	1,002	779	471	954	1,218	7,141
타조합원추정 출자금액										
예상투입액(억원)	1,597.6	6,841.1	19,374.6	18,770.8	23,820.5	18,212.5	4,461.9	2,876.5	3,556.7	99,512.2
생산유발효과(억원)	2,530.3	10,599.2	30,007.2	34,135.0	43,311.3	33,039.0	7,977.2	4,979.6	6,236.0	172,814.9
부가가치유발효과(억원)	1,208.1	5,098.8	14,408.1	15,752.7	19,943.5	15,280.7	3,769.2	2,484.5	2,910.6	80,856.1
고용유발효과(명)	1,694	7,013	19,831	18,343	23,166	17,719	4,316	2,792	3,435	98,309
취업유발효과(명)	2,366	9,344	26,466	23,842	30,101	22,987	5,512	3,399	4,198	128,215

재단 주요 성과 – 위탁보증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대출 관련 이자수익 발생

- 12년 7월부터 13년 3월까지 신·기보를 통해 투자 및 보증을 수행함.
- 보증 업무 수행 기간 동안 총 2,195개 기업에 850억1천만원 보증을 집행했으며, 21년 12월 기준 보증잔액은 145억8천만원임.
- 보증대출에 따라 은행권에는 이자 수익이 발생되며, 연도별 보증대출잔액으로 추산한 이자수익은 172억4천만원으로 예상됨.

보증 집행기관

2,195개

총 추정이자수익*

172.4억원

보증 집행금액

850.1억원

보증잔액(2021년 12월말)

145.8억원

대위변제 효과

- 보증금액 850억 대비 대위변제금액 213억원 발생 (2021년 11월말 현재)
- 출자한 은행들의 부실채권 이전효과가 발생하여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을 높여주고, 대위변제로 인해 발생하는 대손상각비용을 낮춰주는 효과 발생
- 대위변제 보증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대위변제 총당금부채도 지속적으로 재조정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있음 (2021년 11월말 현재 총당부채설정율 56.96%)

대위변제금액(2021년 12월말)

213.4억원

2012년~2021년 예상 발생 이자수익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연도별 추정이자수익	32.5억원	38.5억원	29.7억원	20.8억원	15.2억원	10.6억원	9.3억원	6.7억원	4.7억원	4.5억원	172.4억원

은행권 출연 현황 및 출연기관의 법인세 감면효과



은행권, 2021년말까지 총 8,450억원 출연

- 재단 설립 시 총 5,000억원 출연
- 2018년부터 4년간 총 3,450억원 추가 출연



예상 법인세 감면효과

출연금액 8,450억(최초출연 5,000억, 추가출연 3,450억) 기준으로 최대 1,969억 법인세 감면효과 발생 추정

-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법인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금융위원회의 업무감독을 받음.
- 또한,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상속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면제와 출연자에 대한 세금감면이 주어짐.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3,500억원

은행권일자리펀드 조성

3,200억원

총 법인세 감면효과(추정)

1,968.6억원

*2012년~2021년 예상 법인세 감면효과

	2012	2013	2014	2015	2018	2019	2020	합계
법인세 감면효과	216.9억원	332.8억원	207.3억원	108.2억원	378.4억원	400.0억원	325.0억원	1,968.6억원

지정이익의 10%까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10% 출연금(=기부금) 전액이 이익에 포함되었다고 가정 추산
출연금에 집행된 해에 법인세 감면이 발생했다고 가정(출연이 발생하지 않은 2016, 2017년, 2021년 제외)
순이자이익 상위 10개 은행의 경영성과에 기반한 평균 법인세 유효세율 사용 추정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사업 현황 (2020년 말 기준)



KB금융그룹

- KB금융그룹은 2015년 3월 KB이노베이션허브를 출범하여 핀테크기업 육성을 시작함.
- 2022년 3월말까지 KB스타터스 총 156개사를 선발하였고, 227건의 제휴와 CVC펀드 등 KB금융 계열사를 통해 총 1,077억원의 투자 실행함.

사업 선발 기업수

156개사



신한금융그룹

- 신한금융그룹은 2015년 5월 신한퓨처스랩을 설립하여 핀테크기업 및 다양한 기업을 육성함.
- 2022년 3월 기준 308개사를 육성하였으며, 약 595억원 규모의 직접투자 실행함.

사업 선발 기업수

308개사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그룹은 2015년 6월 스타트업 발굴·협업·육성 프로그램으로 1Q 애자일랩을 설립함.
- 2021년 말까지 총 134개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함.

사업 선발 기업수

134개사



우리금융그룹

- 우리금융그룹은 2016년 디노랩(Digital Innovation Lab)을 출범, 2019년에는 위비 핀테크랩을 확대·개편하여 위비 핀테크랩과 디벨로퍼랩으로 재출범하였음.
- 2021년 말 기준 총 75개사 스타트업 기업에 약 706억원의 직접투자를 실행하였음.

사업 선발 기업수

75개사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조직문화



업의 본질

- 스타트업의 혁신적 성장 및 발전을 통해 국가 경제적 역동성을 높이며, 기성세대에서 창출한 이익의 일부를 활용하여 창업 자본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청년세대 및 계층과의 생산적 협업 창출**

직원의식 및 역할

- 직원들은 '세상을 바꾸는 투자회사의 일원'이라는 명확한 사명감으로 창업생태계 육성 및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열정이 뛰어남.
- 24시간/주7일동안 언제나 살아있는 디캠프는 세계적인 혁신기업인 아마존을 자택하고 있는 데이원(Day-1) 문화를 능가할 정도의 **신속함, 전문성, 유연성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음.**

업무 방식

-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업무에 임하며, 업무에 있어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
- 업무 및 정보의 공유가 업무 효율화 뿐만 아니라 투명성 및 도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집단 지성을 기반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
- 주요 업무들을 개방적 협업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의사결정 과정 및 조직관리

- 집단지성에 의한 토론과 합의로 심사를 진행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국의 어떤 조직보다 신속하게 스타트업의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하고 있음.
-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입주 고객이 바뀌는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유망한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룹웨어, 예산회계, 투자관리, 비품관리 등 ERP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다양한 업무들을 순차적으로 전산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시사점 정리

연구의 시사점

주요 재단 활동의 경제적 가치 및 파급효과

- 2012년 설립 이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에 걸쳐서 직접 투자 금액, 간접투자에 출자한 금액 등을 포함하여 **재단의 주요 창업지원활동에 총 5,707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직접투자에 대한 후속투자금액 및 간접투자에 대한 타조합원 출자금액을 포함하여 총 10조4,374억3천만원에 달하는 유발투자를 창출함.**
- 경제 전반에 걸쳐서 **투자기업의 가치 상승 효과, 유발투자 금액,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포함하여 **총 28조1,818억8천만원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였음 (재단예산 10억원 당 총 493억7천만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
-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는 재단에서 **약 10만9천명의 고용을 증대하거나, 약 14만2천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만들었음(투입예산 10억원 당 19명의 고용/24명의 취업을 유발).

**2022년-2031년
경제적가치 창출 추정액**

약 97조 680억원

향후 재단의 경제적 가치 및 파급효과

- 향후 10년간 투입 재원이 연평균 20%정도 증가한다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한국의 창업생태계에 총 2조3,52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음.
- 이를 통해서 민간부문에서 **총 34조1,845억5천만원의 유발투자 효과**를 만들 수 있고,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서 **총 97조679억6천만원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경제 전체에 걸쳐서 **총 354,796명의 고용** 혹은 **457,817명의 취업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022년-2031년
고용 창출 추정**

354,796명

**2022년-2031년
취업 창출 추정**

457,817명

1.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지난 10년간 창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데 매우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함.
2. 기존 투자에서 회수한 잉여재원들을 새로운 스타트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며, 추가로 재단의 활동에 대해서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야 함.
3. 향후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전문성 확보 및 외형 성장, 중기적으로 아시아시장 진출, 장기적으로 세계시장 진출이 필요함.
4. 중장기적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성 있는 인력 운영과 충원이 필요하며, 내부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